

# 古書목록이 중요한 까닭

新刊書의 목록이 흔히 市中에 유통되는 책의 기록이라면 古書目錄은 秘藏된 책의 기록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렇듯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책의 활용이야말로 古書目錄 없이는 不可缺한 일이 될 것이다. 때문에 學問의 敎導劑라고 할 수 있는 書誌學에서 ①文狀學 ②校勘學 ③板本學과 더불어 ④目錄學이라는 主要한 研究課題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東洋에서는 目錄之學學中第一緊要事必從此門이라 하여 모든 學問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이를 공부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西洋에서는 카알라일이 "A library is not worth anything, without a catalogue; it is polyphemus without any eye in his head"라 하여 도서목록이 없는 도서관이란 마치 희랍神話에 나오는 외눈박이 괴물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잘 만들어진 도서목록은 책의 評價도 드러내게 마련이나 흔히 古書目錄은 ①책이름 ②내용의 차례 ③지은이 또는 엮은이 소개 ④발행된 연대 ⑤발

행한 장소 ⑥간행한 사람 ⑦책의 부피 ⑧책의 크기와 판짜기 ⑨종이의 종류 ⑩제본양식 ⑪그밖의 참고사항등이 기록되어 있는것이 보통이다. 결국 책이름이 같은 책도 이것을 출판한 시대에 따라 책의 됴됨이가 다르고, 같은 내용의 책일지라도 물과도 같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다. 도서목록은 특히 古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로 學問의 歷史라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지 그 분야에 관한 古書를 체계있게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그대로 그 분야의 학문에서는 역사가 될 것이다. 둘째로는 학문의 원천이 된다. 무엇을 연구하든지 그 方面의 文獻資料없이 불가능한데 이를 可能하게 하는 文獻이 어떤 것이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겠기에 그 方面의 학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도서목록의 目錄이란 ①目錄과 ②叙錄을 습한 말이다. 여기서 目錄의 目은 條其篇目的 줄은말로써 책이름 등의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고, 叙錄의 叙는 撮其指意的 줄은말로써 뜻을 나타내

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목록이란 단순히 책을 이를 출판한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도 다르게 마련이다. 이렇게 다른 책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이용될 수가 있다.

古書目錄은 ①古書의 聚錄이다. 古書를 수집해서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든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가치가 있다는 말과 같이 쓸모없는 것이 된다. ②고서 목록은 古書의 족보다. 도서목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내용에 따라서 分類해서 적합한 자리에 순서대로 배열해야 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族譜에 行列과 나이에 따라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도 같다. ③古書目錄은 古書의 呼吸이다. 古書를 수집만 해서 쌓아둔 책더미 속에 그냥 버려졌다면 생명을 잃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古書目錄에 올라있어 필요한 연구자의 손에 들어올 때는 숨쉬는 생명체와도 같은 존재가 된다. ④古書目錄은 古書의 活用을 자극한다. 必要한 사람이 古書目錄을 찾아서 책을 보는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古書目錄에 오른 特殊한 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비로소 그 책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古書目錄은 古書活用に 없어서는 안될 열쇠라 할 수 있다.

— 안춘근(서지학자)

# 출판저널

통권 제106호 / 1992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鏞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容一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寧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彦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潤吳     |
| 宋相庸 | 申福龍 | 慎麗寬 | 安秉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環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映 | 李萬烈 | 李煥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載 | 李重漢     |
| 李姬載 | 林燦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爽鍾 | 鄭雲暎 | 鄭晉錫     |
| 鄭鏞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慶 | 韓勝憲 | 許頌烈 | 洪廷善     |
| 黃鉉彦 |     |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재미있는 책이야기

두고두고 읽히는 몇되지 않는 국내 수필집 가운데 하나로 法頂스님의 「無所有」(범우사)를 꼽을 수 있다. 불교적 지성이 편편마다 돋보이는 이 수필집은 지난 76년 4월 초판이 발행돼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모두 48쇄를 거듭해 스테디셀러로 그 자리를 굳혀온 책.

종교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의 틀을 통해 폭넓은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 책에서 범정은 또한 독서에 관한 수상을 잊지 않고 덧붙여 책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일깨워준다.

### ■ 그 여름에 읽은 책

8, 9년 전이던가, 해인사 笑笑山房에서 「華嚴經 十廻向品」을 독송하면서 한여름 무더위를 잊은 채 지낸 적이 있다. 그해 봄 耘虛老師에게서 「화엄경」講을 듣다가 「十廻向品」에 이르러 보살의 지극한 구도 정신에 감응한 바 있었다. 언젠가 틈을 내어 「십회향품」만을 따로 정독하리라 마음먹었더니 그 여름에 시절 인연이 도래했던 것이다.

조석으로 장경각에 올라가 業障을 참회하는 예배를 드리고 낮으로는 산방에서 독송을 했었다. 산방이라지만 방 하나를 간막아 쓰니 협착

했다. 서까래가 내다보는 조그만 들창과 드나드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방, 그러니 여름이 아니라도 답답했다. 그래도 저 디오게네스의 통속보다는 낫다고 자족했었다.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앞산이 내다보이는 전망이었다. 그것은 3백오췌 되는 화폭이었다.

「화엄경」은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경전이다. 「십회향품」은 그 중 아홉권으로 되어 있다. 한여름 그 비좁은 방에서 가사와 장삼을 입고 단정히 앉아 향을 사르며 경을 펼쳤다. 먼저 開經偈를 읽는다. “더없이 심오한 이 법문 /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데 /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외니 / 여래의 참뜻을 바로 알아지이다.” 경은 實叉難陀(652~710) 漢譯의 목판본으로 읽었었다. 요즘은 한글대장경으로 번역이 나와 있지만 그때는 번역이 없었다. 한글 번역이 있다 하더라도 표의문자가 주는 여운이며 목판본으로 읽는 그 유연한 맛은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더러는 목청을 돋구어 읽기도 하고 한자 한자 짚어 가며 묵독하기도 했었다.

비가 올 듯한 무더운 날에는 돌담

밖에 있는 淨廊에서 역겨운 냄새가 풍겨 왔다. 그런 때는 내 몸 안에도 자가용 변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았다. 一切가 唯心所造니까. 저녁 공양 한 시간쯤 앞두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가사 장삼에 땀이 흥뻑 배고 깔았던 방식이 축축히 젖어 있었다. 비로소 답다는 분별이 고개를 든다. 골짜기로 나가 휘휘 벗어 버리고 시냇물에 잠긴다. 이내 더위가 가시고 심심이 날 듯이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해서 그해 여름 「십회향품」을 10여회 독송했는데 읽을수록 새롭고 절절했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 우러나서 한 일이라 환희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목소리를 통해 내 자신의 근원적인 음성을 듣는 일이 아닐까.

### ■ 非讀書文節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상하다. 얼마나 책하고 인연이 멀기에 강조 주간 같은 것을 따로 설정해야 한단 말인가. 독서가

취미라는 학생처럼 그건 정말 우습다. 노동자나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취미가 독서라면 모르지만, 책을 읽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본업인 학생이 그 독서를 취미쯤으로 여기고 있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기가 단행본을 내보아도 기껏해야 1,2천부밖에 나가지 않는데, 어느 외국 백과사전은 3만부도 넘게 팔렸다는 우리네 독서풍토이긴 하지만.

그렇다라도 나는 이 가을에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이다. 술술 읽히는 책 말고 읽다가 자꾸만 덮여지는 그런 책을 골라 읽을 것이다. 좋은 책이란 물론 거침없이 읽히는 책이다. 그러나 진짜 양서는 읽다가 자꾸 덮이는 책이어야 한다. 한두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기 때문이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서란 거울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한편의 책이 때로는 변칙 내 눈을 뜨게 하고, 안이해지려는 내 일상을 깨우쳐준다.